

‘사자방’ 국조·예산안 ‘빅딜설’ 모락모락

공무원 연금개혁 등 쟁점법안 처리 앞두고 ‘주고받기’식 타협 관심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점 추진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 조사를 둘러싸고 각종 빅딜설이 난무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나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국조를 관철하는 ‘주고받기’식의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야 모두 “빅딜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조만간 쟁점 법안들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예정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4대강과 자원외교 의혹에 관한 국조를 할 수 있지만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면 공무원연

금 개혁 카드라도 야당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 위원이 20일 야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가운데 4대강과 자원외교 국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를 언급, “국정조사 문제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에 대해서도 “(4대 강 사업은) 24조원의 천문학 적 재원이 투입됐고 우리 생태 환경과 관련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고, (자원외교는)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국조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오늘 발언 중 국조 관련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다.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서둘러 선을 그었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열흘 이상 남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타협하기보다는 국조 관철을 향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자방은 국민 대부분의 검토가 이미 끝났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또 검토하겠다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동행이 결렬된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질질 끌면 사자방 비리 의혹의 공범이나 비호세력이라고 규정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 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도 의총에서 “정부·여당이 국조를 수용할 때까지 매주 평균 2~3건씩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 이슈를 관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놔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윤곽이 드러나면 여야가 각자 추진하는 쟁점법안들까지 빅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누리당이 처리 협조를 요구하는 각종 경제활성화 법을 끌어들이 여야 협상의 판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이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회기인 12월9일까지 미룰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쟁점법안들을 포함한 ‘패키지 딜’에 나서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서울 지역위원장 경선 27일 실시

새정치 선관위 잠정 결정...순천·곡성은 내년 전대 이후 선정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서울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이 오는 27일 실시되는 반면, 순천·곡성은 사고 지역위원회로 지정돼 내년 2월 전당대회 이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일 광주 서울 지역위원장 경선을 오는 27일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경선 방법은 2014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당비를 3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 전화투표를 실시한다. 광주 서울의 권리당원은 2882명으로 선관위는 경선 결과를 28일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직특위)는 이날 순천·곡성과

전북 남원·순창을 ‘사고지역’으로 지정, 내년 2월 전당대회 이후 공석중인 지역위원장을 선정하기로 했다.

조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위원장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남원·순창은 강동원 의원과 이강래 전 의원이, 순천·곡성은 김광진 의원과 서갑원 전 의원, 노관규 전 순천시장, 정표수 전 공군소장이 각각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써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기존 8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사고 지역위로 정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평당원들 “당 개혁하라” 새정치민주연합 평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이 20일 국회 정문관에서 당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전준위, 6개 분과위 구성 완료

당헌당규분과위 첫 회의 ‘전대 룰 만들기’ 돌입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0일 모두 6개의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특히 전대 룰(방식) 등 핵심 쟁점 사항을 논의하는 ‘당헌당규분과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하고 전대 룰 만들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당헌당규분과위는 3선의 최규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성주·이원욱·전해철·진성미·최원식 의원과 황인철 전 청와대비서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당헌당규분과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쟁점은 차기 전대에서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 선거인’의 범위다. 당원 입당 시기를 놓고 ‘전당대회 전 6개월’이

나 또는 ‘3개월’이나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당비 납부 횟수 제한과 경선 방식도 쟁점이다. 먼저, 당비 납부 횟수와 관련해 전준위 내부에서 ‘3회 이상’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전대 경선 방식과 관련, 서울에서 한 번에 치르는 ‘원샷 경선’과 지역별 ‘순회 경선’ 등을 놓고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당헌당규분과위는 이밖에 당내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 중 당헌당규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무성, 예산안 합의 불발시 與단독 처리 불사 시사

“밤새워 심사해서라도 시한내 마무리 하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남은 기간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해서 반드시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당 단독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

의 언급과 이후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주말까지 포함해서 13일밖에 안 남았다. 밤새워 (심사를) 해서라도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시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김 대표는 “전혀 원

치않는 방법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최대한 속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개편을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공동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한선 거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하고 사리에 맞지 않다”며 “세월호 정국에서도 지킨 이해 당사자는 합의와 합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은 우리 당처럼 당당히 의견을 내놓고 국민과 공무원 노조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막연히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정배 전 법무장관 광주에 정치연구소 문연다

27일 ‘호남의 희망’ 개소식

천정배(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에 호남 개혁정치 복원을 위한 정치연구소 문연다를 설립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천 전 장관은 오는 27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쌍촌동 영산강빌딩에서 (사)동북아전략연구원 부설 ‘호남의 희망’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천 전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북아전략연구원원은 지난 2003년에 설립돼 민주주의 정의 복지사회를 향한 국가전망과 비전을 연구 제시해왔다.

천 전 장관은 “더 이상 개혁성을 잃은 기독교 호남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호남소의 극복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며 “연구소 ‘호남의 희망’을 통해 호남의 살 길을 찾고 호남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광주 출신으로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인 장하성 교수(고려대)가 특별 강연에 나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층 70m 허니문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신제품 59만원~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구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산프리모가발